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호 [루체 제25542호] 주제 106 (2017)년 2월 2일 (목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파사로운 후대 사랑, 미래사
랑의 정치를 결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의 천어버이정에 떠받들
리워 원아들을 위한 행복
의 보금자리가 세상에
보란듯이 또 하나 훌륭히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그뿐히
갖추어진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인 최봉해동지,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
용원동지, 국무위원회 설
계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
서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를 비롯한 혜당 부문과 학
원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지난해 7월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
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평양중등학원
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일떠섰는데 정
말 보기 좋다고,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건설을 잘했다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의 험한 투쟁에 의하여 이
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을 바라보
느라니 부모없는 아이들
을 위해 늘 마음쓰시며
친부모가 되시여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졌다
하시면서 이렇게 희한하게
건설된 학원을 우리 수령님
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
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사와
기술사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
면서 건설 및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
으로 료해하시였다.



2 면 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평양초등학원의 교사를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하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초등교육단위의 특성에 맞게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하였으며 각종 교구비품들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아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조직과 질단을 위한 마음을 키워주며 일반 기초지식과 체육예능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 소년 단실, 자연실, 음악 및 총보금실 등도 품들에 꾸려놓았으며 복도에 통화적이면서도 직관성과 과학성, 생동성이 보장된 여러가지 그림 등을 붙여놓았는데 모든 공간이 지식홀, 상식홀로 되었다고 하시였다.

2학년 1반에서 진행하는 국어수업도 참관하면서 교원의 교수방법과 교편 물리용정형,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그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와 학습장의 질에

대하여 친어머이심정으로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기숙사를 원아들의 동심에 맞으면서도 그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침실, 식사실, 려발실, 치료실 등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식료품창고에 여러가지 기초식품과 당파류, 과일 등이 그득히 쌓여있을뿐만 아니라 예주덩이까지 달아놓았는데 불만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 나라가 원아들을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풍, 사회주의 조선의 가풍으로 되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초등 및 중등교육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 고등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규정되며 인재강국화실현의 지름길도 당의 초등 및 중등교육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교원들의 교육자격자질을 끊

임없이 높이고 교육내용과 형식,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계

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교직원들이 원아들의 천부모가 되여 그들의 인격형성과 인간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양을 구체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훈계지를 통하여 학원운영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다른 학원들과 교환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릴

때 대한 문제 등 평양초등학원관리운영사업에서 치愆으로 되는 귀중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을 돌아보니 마치 통화세계에 들어갔다 나온것만 같다고. 원아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세상에 부럽

사회주의의 힘찬 동을소리라고 걱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인 평양초등학원을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설했는데 조금도 흡집을대가 없다고, 건축미학적, 교육학적, 위생학적요구로 블 때 자그마한 손색도 없다고,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건축술을 이곳을 돌아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에 대만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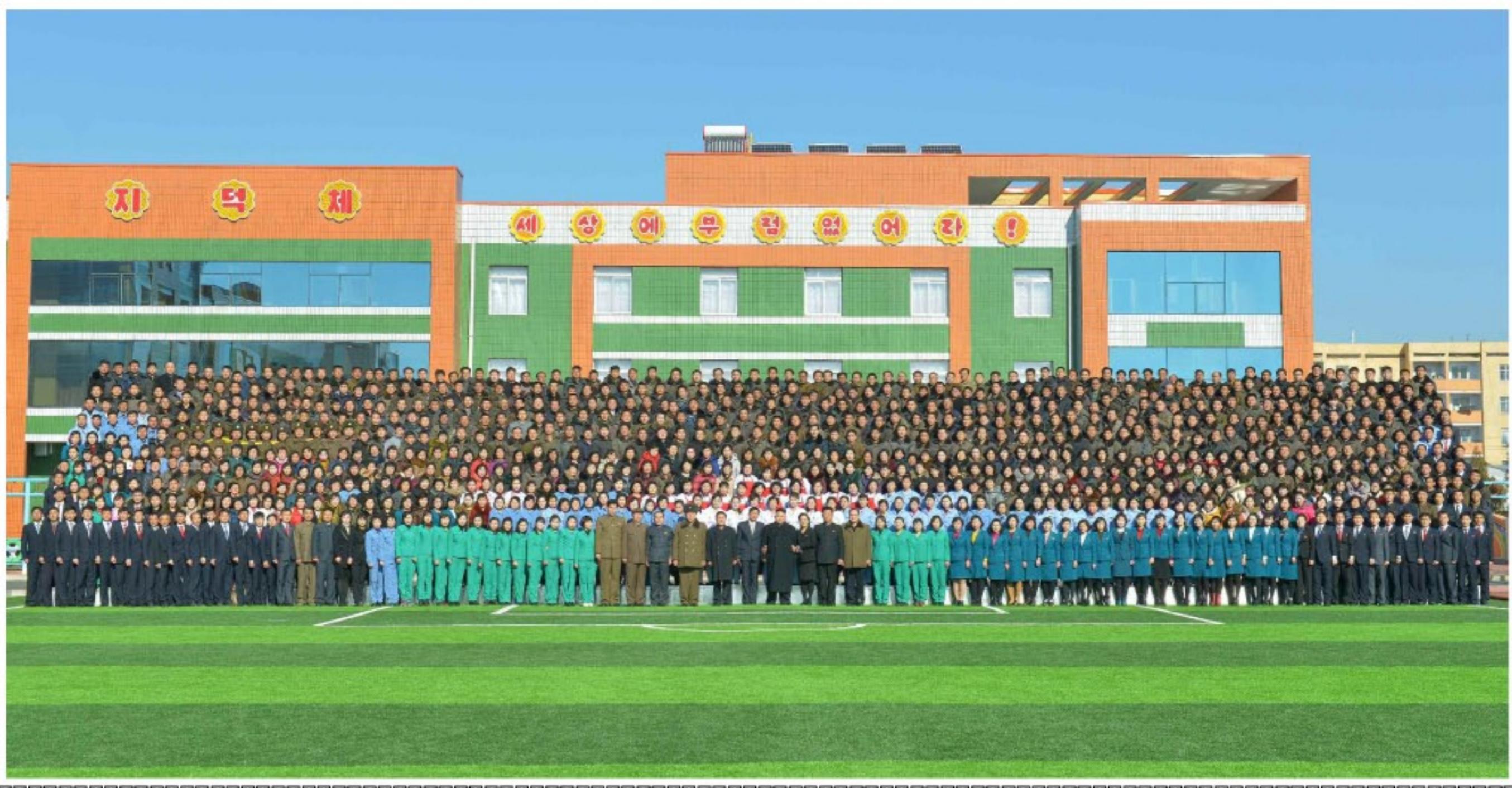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부모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우리 당밖에 없는것만큼 평양초등학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원아들이 설움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색색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학서 잘 들봐주기를 부탁한다고 간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평양초등학원, 평양중등학원 원아들과 교직원들,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원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의 궁전을 지어주시고 자기들을 따사로운 한풀에 안아 품만 같은 행복을 안겨주신 아버지원수님을 우러러 끄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지역체를 경비한 사회주의강국의 밀음직한 역군들로 들통히 준비해갈 불리는 마음을 담아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끄러운 사랑과 정이 끗듯마다에 넘쳐흐르는 원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배움터인 평양초등학원에서는 위대한 아버지의 크나큰 품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라고 목에 에 부르는 원아들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온 세상이 풀썩하게 세세년년 길이 길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새해에 즐음하여 이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국제기구 인사들이 년하장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제 106(2017)년 새해에 즐음하여 이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 국제기구 인사들이 년하장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방글라데시인민공산당(맑스-레닌주의), 인도네시아투니아민주당, 중앙지도위원회 총무원장과 총서기,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루투스알포트나오카를로스에르난데스가, 부위원장으로 대통령, 패스티아나국가 대통령, 아제로바이잔공화국 대통령, 모나코공국 국왕, 칸 마리노 공화국 대통령, 투드크메니스탄 대통령, 아제로바이잔공화국 대통령과 부인, 러완다공화국 대통령과 부인, 청도기내공화국 대통령과 부인, 뮤니지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제로바이잔공화국 대통령과 부인이 년하장을 보내어왔다.

또한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인도네시아투니아민주당, 중앙지도위원회 총무원장과 총서기,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루투스알포트나오카를로스에르난데스가, 부위원장으로 대통령, 패스티아나국가 대통령, 아제로바이잔공화국 대통령, 모나코공국 국왕, 칸 마리노 공화국 대통령, 투드크메니스탄 대통령, 아제로바이잔공화국 대통령, 러완다공화국 대통령, 칸 마리노 공화국 대통령,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제로바이잔공화국 대통령과 부인이 년하장을 보내어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백두산령을 청년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과 청년강국의 상징이다』를 예리하고 훌륭한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월 10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출판사사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백두산령을 청년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년강국의 상징이다』를 예리하고 훌륭한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죽임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

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암체로 길을 여겨온다. 그의 식탁위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아니, 장군님께서 죽으로 끼니를 여우시나니?)…

일군들은 너무도 억이 막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각같아서 풍물에 진수성찬을 풀어놓았습니다.

주제 85 (1996)년 6월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인민군군부에 대한 현지지침을 마치시었을 때는 저녁녁이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많은 일과 헌신을 기울여온 일군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저지기 어려워진 부족지식이나 한계나자고 조용히 이르시였다.

물질에도 그리 민 위대한 장군님을 군부에게 모시고 편안하게 식사까지 함께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었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었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우려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밥을 접수시켰다고, 인민들이 죽을 떠올 때에는 우려도 죽을 떠먹어야 한다고 드롭게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일군들에게 계시고 있는 일군들을 깊이 악혀 황통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던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시며 인민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인민의 그

의 얼과 정이 뜨겁게 숨겨여있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신!

북방 청주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향해 하자고 하실 때 군부대일

나날이 풋내리는 인민의 행복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일과 헌신을 기록한 일군들이 조밥을 먹을 때는

혁명의 성산으로 굽이치는 그리움의 대하, 불라는 충정의 맹세

고결한 이리와 신념의 분출-백두산으로 가리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 병들, 인민들은 당의 사상과 행동을 신념과 뜻으로 떨고 당중앙의 뿌리에 사상의 지침으로, 도덕의 윤리으로 철 풍랑이 풍미며 평화로운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영원히 함께 하여야 한다!》

이 땅에 노래가 울려퍼진다.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백두산 백두산 내 마음의 고향에...

마음의 고향 백두산! 이것은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실상의 토로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

이 데려갈수록 백두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물결은 끝이 없다.

대하마냥 흐르는 행군대오속에 소년단원도 있고 일흔을 험한 네기로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1월 평원군의 나어린 소년단원이 을원으로서 후대들에게 무엇보다 귀중하고 값높은 정신적 유산을 아냈던가.

그에 이어 두해전 7월 일흔을

훨씬 넘긴 막왕구역 승리 1동 48인민의 김호일로인이 차계 거를 타고 단행한 백두산으로의

답사는 또다시 사람들의 실금을 뜯겁게 울리었다.

천안군민의 실정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비랑정신을 살피면서 백두산으로 오르고 또 오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각동 된 실정을 누를걸 없었던 김호

일로인이었다.

위이어 노래 《가리라 백두산 으로》가 새로 나왔을 때에는 또 얼마나 가슴부풀어울랐던가.

백두산으로 가리라. 그 길에 서 기상수문국 부국장으로서는 어제 날의 일군으로서, 로당

원군은 일군으로서 후대들에게 무엇보다 귀중하고 값높은 정신적 유산을 아냈던가.

마쁜 사업의 어깨에도 출판물

에 어려 글작품들을 발표한 적이 있는 그는 청세위인들의 평도의

말자위가 뜨겁게 어여버리는 백두산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들襦는 현실을 편집하면서 기행을 쓰리라 결심하였다.

년로한 품으로 수천리의 담사 행군을 한다는 것은 결코 험한 일

이 아니었다. 정마와 무더위가

겹쳐져 그냥 애어안 있어도 온도

이 땅으로 찾고 때없이 내리는 비에 웃이 마를세 없는 7월에

로인은 하루에 80~90리의

행군을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훠풀이치는 비비랑과 가파로운 평길이 앞을 막아나쳤지만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 훈련군의 강북회, 장성회, 폐순연

울려퍼진 것은 《동지애의 노래》였다.

김호일로인은 이렇게 혁명의

성상 백두산에 올랐다.

김호일로인은 백두산 담사행

군을 걸고 혼자서 한것이 아니었다.

그의 담사행 군소식에 접하고 각 군의 기상판측소의 많은 사람

들이 뜻과 마음을 험한 평원에

등을 금치 못하여 경전회 거수경

예를 보내준 삼수군의 인보악

원도 있었다.

인민 보안원의 거수경에!

바로 그속에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의 고향으로 알고 사는 이

나라 인민의 승용한 정신세계가

깃들어있는것이 아니라.

김호일로인의 담사행 군길에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그였다. 밤동군의 풍토혁명사격지 일군이며 훈련군의 강북회, 장성회, 폐순연

울려퍼진 것은 《동지애의 노

래였다.

김호일로인은 이렇게 혁명의

성상 백두산에 올랐다.

김호일로인은 백두산 담사행

군을 걸고 혼자서 한것이 아니었다.

그의 담사행 군소식에 접하고 각 군의 기상판측소의 많은 사람

들이 뜻과 마음을 험한 평원에

등을 금치 못하여 경전회 거수경

예를 보내준 삼수군의 인보악

원도 있었다.

인민 보안원의 거수경에!

바로 그속에 백두산을 언제나

마음의 고향으로 알고 사는 이

나라 인민의 승용한 정신세계가

깃들어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담사행 군길에 오를 때

마다 누구에게나 고려하듯이

류리성동부에게도 불편한 항

일혁명두성사가 걸어온 험한

혁명의 성상에서 느끼는 모

든것들이 온갖을 정하시켜주

었다.

백두의 행군길에 오를 때

마다 누구에게나 고려하듯이

류리성동부에게도 불편한 항

일혁명두성사가 걸어온 험한

혁명의 성상에서 느끼는 모

든것들이 온갖을 정하시켜주

었다.

백두산으로 가리라! 이것은

온 나라 천만민의 광심이고

신념이며 의지이다. 그것은 우

리 인민에게 자주적인 힘을

마련해준 조국해방, 조국수호, 조

국민영성 청년동맹위원회 1회

군인 린대성동부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이었다.

끊임없이 흐르는 우리 인민의

백두의 행군길은 말해 주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을 암고

사는 천안군민의 일상단계의 위

력으로 전진하는 내 조국을 당황

자 이 세상에 암다온것을.

글 본사기자 신현규

사진 본사기자 김종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이 있고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입니다.》

지난해 6월 우리가 광강도 안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볼 때였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과 보천보 혁명전적지, 백두산 내 척적에 바라보이는 삼지연 대기념비 주변 투지에 이나의 초부들이여,

수필

백두대지에 핀 꽃을 보며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리라—

우리 선현의 별을

그 나루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절영에 놓인 들판

지 말라—

우리 선현의 해풀이

그 풀에 참았었는지 어이 알리!

이 나의 초부들이여,

울려버지지 않았다.

우리 장군님께서 천히 이를

지어주신 천지신원에서 생각할 때

면 한생을 천지신원에 여인에

비친 행군길에 떠나온 들판에

로 학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백두산의 벼화무창한 기상조건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느라면

1년 385일 천지에서 살다일이 하

례는 백두산에 대한 노

래이다.

우리가 한생 암고 살아야 할

혁명정신도, 창조와 건설의 전투

장마마에서 펼쳐야 할

애국심의 자양분도, 억천만인 쓰

리지도 다시 일어나

나 최후승리를 향

하는 신념의 뿌리도 여기에 있다. 디 땅에 울리는 가

장 아름다운 노래와 시도 여기에

있고 가장 향기로운 풋도 여기에

있으며 산한봉에 들풀을 잎지 않는 거목도 여기에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 누구나

백두산기의 풀로써 살다일이 하

려고 부르며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성

색 백두산에 오르는것이 아니라.

백두산은 어제 오늘도 데일

도 영원히 혁명의 성지, 우리 인

민의 마음의 고향으로 천만

번데기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펼쳐져 있다.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말라지고 있다.

직변하는 주변세계도 제 미리 판단

할을 모르고 큰 나라에 끌어붙여 사는

습관되어 민족의 정착한 주제도 가려보

지 못하고 지금처럼 대미주종종에 펼쳐

여는 큰 치욕과 광욕이 있다.

우리의 이러한 행장은 남조선내부정

세를 피우고 있는지 여부로는

여론의 손짓은 더러워지는 것

것이 혁명의 요구이며 혁사의 마지막충고

이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이러한 대세를

외면하고 오는 3월에는 저들의 주도

하여 또다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며 《기리트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걸에 들어

서 빠르 멀찌꺼기

